



# 소명기사(이사야6장)의 관점에서 재고된 욥기 38-42장의 중심내용

박철우(나사렛대)

## 1. 서론

욥기 38장 1절-42장 6절은 신현현 본문으로, 욥의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다루는 본문(욥 38:1-40:2; 40:6-41:34)과, 하나님의 답변에 대한 욥의 응답(욥 40:3-5; 42:1-6)을 다루는 본문으로 구성되어있고, 욥기 전체의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물론 상당수의 학자들이 이 부분 안에서 소위 후기 첨가 본문(아웨의 두 번째 말씀, 특히 욥 40:15-41:34)을 가정하기도 하고, 욥기 40장 3-5절과 42장 1-6절을 본래 서로 연결되어 있던 본문으로 다루기도 한다.<sup>1)</sup> 그러나 필자는 본 논문에서

---

1)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나사렛 대학교의 연구비 지원과제임. Georg Fohrer, *Das Buch Hiob*, 2 Auflage, (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Gütersloh: Gütersloh Verl. 1963, 1988), 34-43; H. H. Rowley, *The Book of Job* (NCBC; Grand Rapids: Eerdmans, 1981), 253-266; John Gray, *The Book of Job*

현재의 정경의 상태 곧 최종본문 형태로 현재의 위치에서 이 본문들이 갖는 고유한 문학적 신학적 기능과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sup>2)</sup>

이 본문의 장르와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왔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욥기 38-41장을 법정논쟁을 배경으로 하며 욥기 40장 3-5절과 42장 1-6절을 하나님의 논박의 말씀에 대한 욥의 응답으로 보는 견해에 대개 동의하고 있다.<sup>3)</sup> 하틀리(John E. Hartley)는 좀 더 상세히 이 하나님의 말씀(아웨 담화[Yahweh Speech], 욥 38:1-40:2; 40:6-41:34)을 다양한 장르의 혼합체라고 본다.<sup>4)</sup> 이 본문을 ‘적에 대한 도전’(challenge to rival) 장르로 본 로월드(H. Rowold)도 이것을 제2이사야의 논쟁(disputation) 장르와 유사하다고 본다.<sup>5)</sup> 뮌첸초우(Charles Muenchow)는 최근에 이 본문을 고대 지중해 지역의 인류학적 특징인 ‘명예-수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도 역시 이 본문이 법정논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sup>6)</sup> 이

---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10), 14-15.

- 2) Samuel Terrien, *Job: Poet of Existence* (New York: The Bobbs-Merrill Company, 1957); Norman C. Habel, *Job*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85); 하경택, “욥의 탄식과 하나님 발언의 관계성 연구,” 『구약논단』 22 (2006), 98-114; 김재구, “욥기 1-3장: 욥기를 푸는 열쇠,” 『구약논단』 13/2(2007), 92-106; Daniel Timmer, “God’s Speeches, Job’s Response, and the Problem of Coherence in the Book of Job: Sapiential Pedagogy Revisited,” *CBQ* 71(2009), 286-305; David Clines, *Job 1-20* (Waco: Word Books, 1989); idem, *Job 21-37*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6); idem, *Job 38-42* (Dallas: Word Books, 2011); Carol A. Newsom, *The Book of Job: A Contest of Moral Imagin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Jeffrey Boss, *Human consciousness of God in the book of Job: a theological and psychological commentary* (New York: T&T Clark, 2010), 1-12; 이상혁, “이야기로서의 욥기 읽기,” 『구약논단』 17/1(2011), 83-107.
- 3) Claus Westermann, *The Structure of the Book of Job: a form-critical analysi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1); John Gray, *The Book of Job*, 451-454; David Clines, *Job 38-42*, 1039-1224.
- 4) 하틀리(John E. Hartley)는, 이 아웨 연설은 여러 장르의 혼합물로서 신현현, 찬양시, 논쟁, 피고 심문, 태고생 물과의 신의 전쟁에 관한 신화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말씀의 본질적 특성은 찬양시라고 본다. 그리고 이 찬양시와 수사학적 의문문들과 연결되면서 하나님과 욥과의 접점을 만들고, 이렇게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은 욥의 대답에 담겨있는 두 개의 지배적 요소인 탄식과 법정소송에 연결된다고 본다: John E. Hartley, *The Book of Job* (Grand Rapids: Eerdmans, 1988), 487-537; 특히 488-489.
- 5) H. Rowold, “Yahweh’s Challenge to Rival: The Form and Function of the Yahweh-Speech in Job 38-39,” *CBQ* 47 (1985) 199-222.
- 6) Charles Muenchow, “Dust and Dirt in Job 42:6,” *JBL* 108/4 (1989), 597-611.

런 법정논쟁을 통하여 욥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sup>7)</sup> 그러나 욥기의 저자는 이 기본적 장르를 다른 장르나 이미지들의 첨가를 통하여 매우 창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주지의 사실이다.<sup>8)</sup> 욥기가 고도의 문학적 신학적 담론을 담고 있는 책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필자는 욥기의 저자가 특히 암시적인 간접적 인용에 해당되는 인유법(indirect allusion)으로 그 신학적 의미를 전달한다고 본다.<sup>9)</sup> 필자는 이 본문 특히 욥기 40장 3-5절과 42장 1-6절에 이사야 소명체험의 문학적 이미지와 신학적 요소가 담겨 있다고 본다. 포러(Georg Fohrer)는 이미 이 본문의 내용(특히 욥 40:3-5과 42:6)을 욥의 회개와 자기부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것을 예언자들의 소명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으며, 창세기 32장 11절, 출애굽기 3장 11절, 이사야 6장 5절, 예레미야 1장 6절 등의 본문을 언급한다.<sup>10)</sup> 포러는 특히 욥기 40장 4절의 해석과 관련하여, 믿음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 실존의 현실로 느낄 수 있는 무지함과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sup>11)</sup> 필자는 이 관점이 좀 더 상세히 전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것을 더 넓은 문학적 상관관계와 영적 심리학적 패러다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본문이

- 
- 7) Francis I. Andersen, *Job*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Downers grove: IVP, 1976), 268-272; John E. Hartley, *The Book of Job*, 487-537; Norman C. Habel, *Job*, 549; Daniel Timmer, "God's Speeches, Job's Response"; Keun-Jo Ahn, "The Significance of the Divine Speech in Job 38-41 in the Context of Literary Tradition," (Ph. D.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2004); 뮤엔초우는 이 책의 목적이 교육이 아니라 명예의 회복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논박을 통한 명예의 회복과 법정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연기를 원하시는 궁극적 목적은 욥을 교육하는 것이라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Charles Muenchow, "Dust and Dirt in Job 42:6").
- 8) John E. Hartley, *The Book of Job*, 488 ("The Yahweh speeches...create a unique form"); Michael Brennan Dick, "The Legal Metaphor in Job 31," *CBQ* 41/1(1979) 37-50, ("...characteristic artistic freedom in the use of this legal pattern." 49); Carol A. Newsom, *The Book of Job*.
- 9) 참고, Roger Hahn, et al. *Discovering the New Testament* (Kansas: Beacon Hill Press, 2005), 172-181; J. Bradley Chance and Milton P. Horne, *Rereading the Bible: An Introduction to the Biblical Story* (Upper Saddle River: Prentice-Hall, 2000), 2-25.
- 10) Georg Fohrer, *Das Buch Hiob*, 533
- 11) Norman C. Habel, *The Book of Job*, 549

갖는 해석학적 함의가 더 명백히 부각되리라고 본다. 제바트(Matitiahu Tsevat)도 욥과 예언자들과의 체험의 유사성에 관해 포러의 해석에 동의한다. 그는 특히 예언자들과 하나님 사이의 교통(communion)과의 유사성을 지적하면서 아모스 3장 7절(하나님은 그의 종 예언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인용한다. 그리고 아모스와 교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본문으로 아모스 7장 1-9절과 8장 3절, 그리고 이사야 6장 8-13절과, 아브라함과 교통을 보여주는 창세기 18장 17-21절과 23-33절, 모세와의 교통하심을 보여주는 출애굽기 32-34장을 언급한다. 그러나 예언자의 소명체험과의 관련성을 더 전개하지는 않는다.<sup>12)</sup> 사무엘 테리안은 욥기 42장 6절과 이사야 6장 5절과의 관계를 언급한다.<sup>13)</sup> 하벨은 포러의 전개를 부정적으로 본다. 포러가 인용한 본문들(출 3:11; 사 6:5; 렘 1:6)이 병행적 상황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며 동사 qll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는다고 지적한다.<sup>14)</sup> 그러나 그는 이 양자 사이에 더 미묘한 문학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이사야 6장 1-13절과 욥기 40장 3-5절; 42장 1-6절과의 관계는 이 한 단어의 해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 관찰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남덕우도 그의 박사학위논문의 결어부분에서 신현현의 상황에서 하나님과 직접 만난 예에 관해 언급하면서 예레미야와 바울과 하박국 등을 언급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사야와 에스겔 등의 영적 체험 또는 소명체험과 관련된 사항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sup>15)</sup>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하여 욥기저자의 선이해(precomprehension)에 이사야의 소명체험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실제 욥기 본문과 이사야 소명기사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

12) Matitiahu Tsevat, "The Meaning of the Book of Job," *HUCA* 37(1966) 73-106, 특히 92.

13) Samuel Terrien, *Job* (Delachaux et Niestl : Delachaux et Niestl Neuchatel, 1963), 269-270.

14) Norman C. Habel, *The Book of Job*, 549.

15) Nam Duck Woo, "Job 42:7-9 and The Nature of god in the Book of Job," (Ph. D. Dissertation;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2000), 274-275.

며 비록 문학 장르상, 동일한 장르는 아니지만, 인유적으로 욕기 본문에 반영되어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sup>16)</sup> 따라서 욕기 38-42장의 내용을 이러한 문학적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욕기 40장 3-5절과 42장 1-6절을 포함한 욕기 결론부(욕 42:7-17)의 이해에 있어 중요한 영감을 제공한다고 본다.

그리고 필자는 특히 욕기 40장 3-5절과 42장 1-6절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을 이사야를 포함한 예언자들(하나님의 종들)의 영적 심리적 체험의 패러다임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영적 만남의 체험은 루돌프 오토가 말하는 누미노제이며, 윌리엄 마슬로우 등의 자아초월심리학자들(transpersonal psychologists)이 말하는 정점체험(peak experience)과도 유사하다.<sup>17)</sup> 존 그레이도 욕의 체험이 오토가 말하는 거룩성의 체험이라는 관점을 제시하기는 하나 포괄적으로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sup>18)</sup> 이 본문과 이사야와의 관계는 부분적이거나 존 그레이의 주석서에서도 언급된다. 그러나 그는 이것의 의미를 충분히 전개하지 않고 있다. 너무 지나치게 이 본문의 기본양식을 법적 논쟁이라는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이 본문의 구조와 내용이 이사야 그리고 에스겔 모세 더 나아가 바울의 체험에서 볼 수 있는 소명체험의 요소와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것이 갖는 함의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욕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가 이 책의 핵심이라는 견해는 이미 로울리가 명백히 잘

---

16) 노먼 하벨은 이 장르의 원형이 이미 아웨 문서와 엘로힘 문서층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한다. Norman C. Habel, "The Form and Significance of the Call Narratives," ZAW 77(1965), 297-323.

17) Rudolf Otto, *The Idea of the Hol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Abraham Maslow, *Religions, Values, and Peak Experiences* (Kappa Delta Pi, 1964, 1970 (preface) The Viking Press. Published by Penguin Books Limited); D. H. Lajoie, / S. I. Shapiro, "Definitions of Transpersonal Psychology: The First Twenty-three Years," *Journal of Transpersonal Psychology* 24/1(1992), 79-98; Walsh, R. & Vaughan, F. "On Transpersonal Definitions," *Journal of Transpersonal Psychology* 25/2 (1993), 199-207.

18) John Gray, *The Book of Job*, 485-488.

전개한 바 있다.<sup>19)</sup> 로울리는 고통받는 영혼에게 ‘신학’은 하나님과의 만남 곧 ‘종교’보다 덜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sup>20)</sup> 욥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며, 고난으로부터의(no from his misfortunes) 해방을 체험한 것이 초점이 아니라 고난 안에서(but in them) 해방을 체험하는 것이 이 책의 본질이라고 본다.<sup>21)</sup>

그러나 그들의 관찰은 심리학적 패러다임적 접근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었다. 보젤(Walter vogels)은 욥기를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한다. 그는 죽음을 대면하는 인간의 심리적 발전과정에 관한 엘리자베스 퀴블로-로스의 이론과 이를 감정적으로 상처받은 사람에게 적용한 데니스 린와 매튜 린의 이해를 바탕으로 욥이 맞이하게 된 죽음과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을 인간 심리의 5단계과정(Denial, Anger, Bargaining, Depression, Acceptance)으로 설명한다.<sup>22)</sup> 보젤은, 욥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욥기 1-2장에 겪었던 박탈(prevention)에서 회복의 체험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초기의 단순한 행복의 상태(욥 1:1-5)에서 이 과정을 겪은 후의 성숙한 단계의 행복(욥 42:10-17)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서술한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에게 신앙적 성숙과 도약을 가져오게 했다고 전개한다. 마이클 코리(Michael Corey)는 칼 욥의 무의식 이해를 바탕으로, 욥과 요나에 나타난 ‘낮아짐의 상황’, 깊은 바다에 빠진 요나의 체험과 욥의 고난이 상징하는 것이 인간의 개인화(individuation),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 자아통합(self-reintegration), 영적 심리학적 온전성(psychospiritual wholeness)

---

19) H. H. Rowley, *The Book of Job*, 18-21.

20) H. H. Rowley, *The Book of Job*, 19.

21) H. H. Rowley, *The Book of Job*, 20.

22) Walter Vogels, "The Spiritual Growth of Job: A Psychological Approach to the Book of Job," *Biblical Theology Bulletin* 11 (1981) 77-80; Walter Vogels, *Job, L'homme qui a bien parlé de Dieu* (Paris: Cerf, 1995).

을 향한 필연적 과정임을 서술하는 것으로 해석한다.<sup>23)</sup> 그에 의하면, 인간의 자아는 고통과 고난 없이는 무의식속의 부정적 자아인 ‘그림자’(Shadow)와의 통합을 통한 영적 심리적 통합과 온전성의 길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인간은 이 통합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도움을 간구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요나는 이 낮아짐과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 사명을 깨닫게 되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해석을 내린다. 욥도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통하여 성숙의 단계에 이른다는 점을 피력한다. 그리고 그들의 이 영적 심리적 체험을 키에르케고르의 ‘믿음의 도약’(leap of faith)으로 본다.<sup>24)</sup> 최근에 제프리 보스(Jeffrey Boss)도 이와 유사한 관점을 가지고 심리학적 차원에서 욥기를 해석한다. 그는 욥이 세 개의 심리학적 단계를 통과했다고 본다. 우선 욥은 초기의 안정적 풍요를 누리며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던 삶을 살았다. 그러나 재앙을 통해서 그의 삶은 완전히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 되고 만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욥은 이 흑암의 상황에서 지혜를 갈망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형용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더 큰 온전함의 단계로 회복되게 되며 결국 그에게 상처를 준 친구들을 용서하는 성숙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심리적 발전단계를 거치게 됨을 서술한다.<sup>25)</sup>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욥 38:1-42:6)을 통해 이루어지며 바로 이 만남이 루돌프 오토가 말하는 ‘두려움과 매혹의 체험’(tremendum et fascinans)이라고 보는 것이다.<sup>26)</sup> 필자는 이러한 해석의 상당부분 동의한다. 특히 하나님의 현현은 욥에게 하나의 영적 도약을 가져온 사건이며 이것을 통해 삶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됨을 설

23) Michael Corey, *Job, Jonah, and the Unconscious* (Marylan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5).

24) Michael Corey, *윇글*, 11.

25) Jeffrey Boss, *Human Consciousness of God in the Book of Job: A Theological and Psychological Commentary* (London: T & T Clark International, 2010).

26) Jeffrey Boss, *윇글*, 196-200.

명한다.<sup>27)</sup> 그러나 위의 저자들은 이사야의 소명체험이라는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한 사명적 의미를 충분히 전개하지는 않는다. 물론 마이클 코리의 경우, 요나의 낮아짐과 회개의 체험이후 갖게 된 사명(mission to Niniveh)을 강조한다.<sup>28)</sup> 그러나 욥의 사명에 관하여는 전개하지 않고 있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이사야의 소명기사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욥의 영적 체험과 사명의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욥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육은 단순한 영적 심리적 치유와 회복을 넘어서 사명자 곧 성숙한 ‘하나님의 종’ (“나의 종” [욥 42:7-8, עַבְדִּי 아브디, 4회])으로 양육하는데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sup>29)</sup> 이러한 심리학적 패러다임의 접근은 욥기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 문제도 해결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욥기 40장 3-5절과 42장 1-6절의 내용을 욥기의 결론적 산문부인 욥기 42장 7-17절과 ‘패러다임’이라는 차원에서 내용적으로 연결시켜줌으로써, 욥기의 산문부분과 운문부분사이의 모순적 요소와 운문부분의 저항적 욥과 산문부분의 순종적 욥과의 차이를 해결하는데 일조한다.

이러한 문학적 영적 심리학적 접근은 욥기 38-42장의 중심내용을 좀더 명료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욥기 전체를 한권의 책으로 읽어야 하는 당위성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본 논문의 2장에서, 본 논문의 중심 본문인 욥기 40장 3-5절과 42장 1-6절의 해석에 관한 경향과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논문의 3장에서 이사야 6장 1-13절에 나오는 표현과 내용상의 특징들을 욥기의 내용(특히 욥 40:3-5; 42:1-6)과 비교 검토하고, 이사야 소명체험 및 모세, 에스겔, 바울 등의 소명체험과 욥의 체험과의 유사성, 곧 영적 심리학적 패러다임을 살펴 본 후, 본 논문의 결

27) Jeffrey Boss, *뫼글*, 197.

28) Michael Corey, *Job, Jonah, and the Unconscious*, 25-30.

29) 욥기저자는 이 내러티브 안에서, 아직 이 특별한 영적 심리적 성숙의 단계를 체험하지 않은 하나님의 종 욥(서론부[욥 1-2]: “나의 종”, 욥 1:8; 2:3)에서 이 과정을 거친 후의 욥(결론부[욥 42:7-17]: “나의 종”, 욥 42:7-8)을 지향하며 욥의 삶을 인도한다.

론부(4장)에서 욥기 해석에 있어 이 관찰들이 갖는 함의(특히 사명자로서의 하나님의 중, 욥)를 검토하고자 한다.

## 2. 욥기 40장 3-5절과 42장 1-6절의 해석

욥기 40장 3-5절과 42장 1-6절의 해석은 크게 두 계열로 나눌 수 있다. 이 본문들이 욥의 회개를 나타내는 것인가 아니면 야웨 말씀(특히 38:1-39:30)에 대한 거부를 나타내는 것인가로 구별된다. 전자가 대부분의 번역 성경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며 전통적 해석이다.<sup>30)</sup> 최근에 뉴엘, 다이엘 터머, 트렘퍼 롱맨, 마이클 폭스 등이 이를 대표한다.<sup>31)</sup> 이와 달리, 안더센(Fransis I. Andersen), 로버트슨(D. A. Robertson) 등은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욥 38:1-39:30)에 대한 욥의 대답(욥 40:3-5)은 진심을 감추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sup>32)</sup> 데이빗 클라인스의 경우도, 욥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sup>33)</sup> 욥은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에서 그가 듣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정의(Divine justice)에 관한 대답을 듣지 못했고 단지 그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에 관한 말씀만 들었으

30) ASV, RSV, NRSV, NKJV, NIV, NJB, etc.

31) B. L. Newell, "Job: Repentant or Rebellious?" *WTJ* 46(1984), 298-316; D. C. Timmer, "God's Speeches, Job's Responses, and the Problem of Coherence in the Book of Job: Sapiential Pedagogy Revisited," *CBQ* 71(2009), 286-305; Michael V. Fox, "God's Answer and Job's response," *Biblica* 94(2013), 1-23; Tremper Longman III, *Job*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2); cf. Samuel Terrien, "The Book of Job," *The Interpreter's Bible*, vol. 3, (Nashville: Abingdon Press, 1954), 1183-1194; idem, *Job: Poet of Existence* (New York: The Bobbs-Merrill Company, 1957); H. H. Rowley, *The Book of Job*; L. Alonso Schökel / Sicre Díaz, *Job: comentario teológico y literario* (Madrid: Edición Cristiandad, 1983), 594-597; John Gray, *The Book of Job*, 485-488, etc.

32) Fransis I. Andersen, *Job: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75), 285; D. A. Robertson, *The Old Testament and the Literary Critic*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7), 52.

33) David Clines, "Does the Book of Job Suggest that Suffering is Not a Problem," *Weisheit in Israel: Beiträge des Symposiums "Das Alte Testament und die Kultur der Moderne" anlässlich des 100. Geburtstags Gerhard von Rads (1901/1971)*, Heidelberg, 18.-21. Oktober 2001(ed. David J. A. Clines, Hermann Lichtenberger and Hans-Peter Müller; Altes Testament und Moderne, 12; Münster: Lit Verlag, 2003), 93-110.

며, 따라서 그는 만족할 수 없었다고 본다. 욥기 40장 3-5절은 욥이 느낀 굴욕감을 나타내지만 그렇다고 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욥은 단지 자신이 보잘 것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노라고 할 뿐이라는 것이다. 마치 법정에서의 두 대립상대가 교착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고 본다.<sup>34)</sup> 그리고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욥 40:6-41:34)이후에 나오는 욥의 고백에서(욥 42:1-6) 욥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고발을 취하겠다고 본다. 물론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 할 수도 없었고, 이것은 단지 이제 애곡의 기간도 끝내고자 한다는 욥의 의지만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티끌과 잿더미’로 상징되는 그의 애곡(욥 42:6)에 대한 위로도 수용한다고 본다. 그래서 클라인스는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그러므로 저는 굴복합니다. 그리고 내 비참한 인생에 대한 위로를 수용합니다.”<sup>35)</sup> 클라인스에 의하면, 욥은, 하나님은 인간의 정의에 관심이 없으시며 이 문제는 단지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적 창조와 그 운행의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인간이 알 수도 없는 문제라고 깨닫는다. 따라서 욥은 그의 법정소송을 더 이상 지속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비록 만족하지 못하지만 인간적 한계라는 현실을 인정한다. 단지 이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의 삶으로 복귀한다고 본다. 클라인스는 욥기 42장 7-17절의 내용을 이러한 현실 복귀의 삶을 서술하는 부분으로 이해한다.<sup>36)</sup> 이 해석은 욥의 회개를 부정하는 해석으로, 전통적인 해석과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안더센(Francis I. Andersen)과 에드윈 굿(Edwin M. Good)도 욥의 회개를 부정한다.<sup>37)</sup> 특히 1966년의 논문으로 이러한 해석을 시작한 쉘바트(M. Tsevat)의 경우, 욥기 42장 1-6절에서 욥이

34) David Clines, *Job 38-42*, 1138-1140.

35) David Clines, *윳글*, 1205-1224.

36) David Clines, *윳글*, 1225-1242.

37) Francis I. Andersen, 285; Edwin M. Good, *In Turns of Tempest: A Reading of Job with a Transl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349-353.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의는 세상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보상의 원칙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보상의 원칙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벗어남으로써 비로소 자유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본다.<sup>38)</sup> 데일 패트릭(Dale Patrick)은 욥기 42장 6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그러므로 나는 티끌과 잿더미에 있는 것을 거부하며 포기합니다”(“Therefore I repudiate and repent of dust and ashes”).<sup>39)</sup> 그리고 이 본문(욥 42:1-6)을 회개의 관점이 아니라 찬양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이 학자들은 회개(repent)라는 말도 마음의 깊은 근본적 변화라는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는다. 단지 욥의 자세와 말과 행동이 바뀌었다는 차원으로 이해한다. 커티스(J. B. Curtis)는 극단적인 견해를 피력한다. 그에 의하면 욥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한다. 커티스는 욥기 40장 4절을 아주 신랄한 비꼬고 적대감을 가지고 무죄한 사람의 고난과 같은 작은 문제들에는 관심조차 없으시고 우주론과 같은 큰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이 아무 쓸모조차 없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욥기 42장 6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는 주께 혐오감과 함께 경멸과 반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존재의 나약성도 슬픔입니다.”<sup>40)</sup> 커티스는, 무죄한 사람의 고통에 관해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실망한 욥은 이 의롭지도 마땅하지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신을 거부한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은 전통적인 해석과는 완전히 배치된다. 즉 욥기 40장 3-5절과 42장 1-6절에서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는 이해와 다르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이 전통적 견해를 지지한다. 우선 여기에

38) M. Tsevat, “The Meaning of the Book of Job,” *HUCA* 37 (1966), 73-106.

39) Dale Patrick, “The Translation of Job XLII 6,” *VT* 26 (1976), 369-371; L. J. Kaplan, “Maimonides, Dale Patrick, and Job XLII 6,” *VT* 28(1978), 356-357.

40) J. B. Curtis, “Job’s Response,” 500-501, 507-509.

서 욥기 40장 3-5절과 42장 6절의 번역과 관련하여 논란의 중심에 있던 본문과 관련된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1) 욥기 40장 4절에 나오는 *qll*(קלל)은 일반적으로 작다, 가볍다, 하찮다 등의 의미로 해석된다. 개역개정, 표준새번역, *NIV*, *NRSV*, *JPS* 등은 이런 의미로 번역한다. 켈바트는 이 단어가 *כבד*(כבוד)의 반의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sup>41)</sup> 할러데이(Holladay)에 의하면, *kbd*는 사람에게 적용될 때 탁월성 존경 명예 등을 의미한다.<sup>42)</sup> 70인역에서 *οὐθὲν ὄν* (being nothing)으로 번역되는데 이와 유사한 의미이다. 포러, 로울리, 사무엘 테리앙, 다니엘 티머와 뉴섬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피력한다.<sup>43)</sup> 이 표현 자체의 의미와 번역에 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단지 학자들에 따라서 이것을 회개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러, 로울리, 사무엘 테리앙, 티머, 폭스 등은 이것을 회개라는 맥락에서 이해한다. 그러나 켈바트, 커티스, 클라인스, 글라조프 등은 이것을 하나님의 답변에 대한 욥의 거절로 이해한다.<sup>44)</sup>

(2) 욥기 40장 4절의 손을 입에 갖다 대는 것과 관련하여, 이 행위는 두려움, 깊은 존경, 수치, 외경심, 복종, 겸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욥 21:5; 29:9; 미 7:16-17).<sup>45)</sup> 여기에서 욥은 하나님의 첫 번째 말

41) M. Tsevat, *유타*, 91.

42) William L. Holladay, *A Concis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Leiden: Brill, 1988), 151.

43) Georg Fohrer, 531, 533("Ich bin zu gering"; "Uneinsichtigkeit und Ohnmacht"); H. H. Rowley는 욥의 하찮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해한다("confesses his insignificance"), 253; Samuel Terrien, *Job*, ("je suis chose trop légère"), 257; Daniel Timmer, 293-294, ("I am flawed and finite", 저는 결함이 있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Carol A. Newsom, "Job,"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4,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613 (self-humiliation).

44) 참고 앞의 논의; Gregory Yuri Glazov, "The Significance of the 'Hand on the Mouth' Gesture in Job xl 4," *VT* 52 (2002), 30-41.

45) Walter Vogels, *Job*, *L'homme qui a bien parlé de Dieu*, 235-236 ("plein de respect et de vénération"); B. L. Newell, 307-309; Michael Fox, 18; Charles Muenchow, "Dust and Dirt in Job 42:6," 608; Gregory Yuri Glazov는 그의 논문, "The Significance of the 'Hand on the Mouth' Gesture

숨(욥 38:1-39:30)을 듣고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권능과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무가치함과 하찮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최근에 뮤엔초우는 ‘명예-수치 문화’가 팔레스티나를 포함한 지중해역의 문화적 특징이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욥기 38-41장에서 욥은 하나님의 절대성의 선포(욥 38-39) 앞에, 하나님의 상위(precedence)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하찮음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의 부질없음을 말과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이 욥기 40장 4-5절의 내용이라고 본다.<sup>46)</sup>

(3) 욥기 42장 6절에 나오는 히브리 동사 **סָרַח**의 어근은 **סָרַח**일 수도 있고(refuse, reject, retract, despise, repudiate), **סָרַח**(sink down, melt, capitulate)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욥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복종을 의미하며 이 회개의 문맥에 어울린다.<sup>47)</sup>

---

*in Job xl 4"에서 제스처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이 행위의 의미로, 놀람, 외경심, 존경, 회개, 겸허, 경의 등을 언급한다. 그러나 그는 이 본문해석에서 욥이 하나님의 대답을 거절하는 것으로 해석한다(VT 52 [2002] 30-41).*

46) Charles Muenchow, "Dust and Dirt in Job 42:6," 608.

47) 이 단어에는 목적어가 없다. 그러나 BDB 549b § 2에서 이 단어가 despise로 쓰일 때는 목적어 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cf. David Clines, 1207); David Clines는 만일 סָרַח의 목적어를 취한다면 '나의 소송' **מִשְׁפָּטִי**(mišpāṭi)가 적절할 것으로 제안한다. 그러나 그는 sam II = ssm(flow, melt)의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I submit"로 번역한다. 1205-1207). NEB의 "I melt away"도 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John Gray는 이중번역인 70인역을 따라, "I demean myself and yield"로 번역한다( ), 486; Daniel Timmer, 299; Robert Gordis, 305 ("I abase myself"); Georg Fohrer, 531-532, ("Darum widerrufe ich", following Lester J. Kuypers, VT 9(1959), 91-94); JB("I retract all I have said"), NAB(I disown what I have said"); Norman C. Habel, 575-576 (I retract); 로울리는 이 단어의 문맥상의 목적어를 욥 자신으로 본다 ('despise himself'; cf. RSV, NIV[I despise myself], KJV[I abhor myself]; cf. 70인역, [ἐφ'αὐτίσα ἐμαυτὸν καὶ ἐτάκην, I have held myself cheap]; Vulgata[ipse me reprehendo, I rebuke myself]); 개역("내가 스스로 한하고" [KJV ASV RSV NIV에 가까운 번역]). 다른 학자들은 여기에 'what I have said'를 목적어로 해석한다(표준새번역); 개역개정("내가 스스로 거두어 들이고")의 의미는 다소 불분명하다. 포프는 욥기 7장 16절에서 사용된 동일한 단어처럼, 목적어가 그 문맥 안에 있는 경우 이 목적어는 생략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마빈 H. 포프, 「욥기」,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 472, 원제는 Marvin H. Pope, Job, [Doubleday & Company, 1965, 1973]). 포프는 이 단어를 recant로 번역하며 그 문맥상의 목적어로 'my words'로 이해한다(cf. John E. Hartley, "I recant," 535); 로울리는 이 견해에 동의하며, 욥이 자신이 말한 것들에 대해 자신을 멸시하는 것이나 그가 말한 것을 취소하는 것이나 서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든 상관없이 없다고 본다(H. H. Rowley, 266); 필자는 로울리의 이 견해에 동의하며 아래 번역에서 개역에 나타나 있는 전통적 견해를 취한다; cf. L. J. Kuypers는 이것을 "Therefore I reject"로 번역한다. 그리고 목적어가 보충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말로 하나님께 도전하며 대답을 요구한 것의 부적절함, 더욱이 그것들이 전통적인 보은 원칙을 바탕으로 한

(4) 욥기 42장 6절의 נִנְחָמוּ도 다양한 번역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예레미야 8장 6절과 예레미야 31장 19절의 용례를 따라 전통적인 ‘회개하다’라는 의미도 타당하다고 본다.<sup>48)</sup> 그러나 이 책에서 전체적으로 욥 자신도 그의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욥의 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고통의 원인으로서의 죄에서의 회개는 아니다.

로울리는 욥의 회개는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는 죄, 곧 욥에게 고난을 가져왔을 것으로 보는 죄들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친구들과의 논란의 과정에서 욥 자신의 무지로 인해 그가 말한 것들에 대한 회개라고 본다.<sup>49)</sup> 욥기의 독자들에게, 욥기의 서론부(욥 1:1-2:13)에서 이미 인정된 그의 신앙의 순수성이 결론부(욥 42:7-17)에서 다시 검증된다. 욥의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해결된다. 로울리는 욥이 고난 가운데

---

요구와 항의였다는 것에 대한 어리석음에 자괴감을 느끼며 이제 자신의 말을 취소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These words he now rejects as worthless and repents of his folly in using them ‘therefore I reject (my words), and I repent in dust and ashes’”, L. J. Kuyper, “The Repentance of Job,” 94; 클라인스는 ‘despite myself’ 나 ‘despise my words’, ‘reject himself’ 등의 표현은 여기에서 욥의 가라앉은 저음의 언어보다는 지나치게 감정적 표현이라고 보며 욥이 자신을 멸시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적 견해를 피력한다(David Clines, 1219). 그러나 클라인스는 이 본문에 내재되어 있는 영적 체험, 곧 하나님 앞에서 있는 한 인간이 가지는 죄 뉘와 부정함의 고백(사 6)을 간과하고 있다.

- 48) נִנְחָמוּ의 Niphal 형으로 (Piel 형도 가능하나[comfort, console], 욥기 42장 6절에서는 문맥상 해당이 되지 않는다), KJV, RSV, NRSV, JB, NEB, NIV 등의 성경이 이 이해를 취하고 있다; Georg Fohrer, 531, “Darum widerrufe ich und bereue in Staub und Asche”; H. H. Rowley, 342; B. L. Newell, 313-314; Michael V. Fox는 “만일 욥의 이 말을 시편자가 했다면 아무도 이것이 회한(contrition)을 의미하는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것”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Therefore I am disgusted, and I repent on dust and ashes.” Michael V. Fox, 18-19; Robert Gordis, 305; Daniel Timmer, 299-300; David Clines는 נִנְחָמוּ를 comfort oneself for, be comforted for라는 의미로 이해하여 “I accept consolation for my dust and ashes”로 번역하고, 욥이 이제 그의 애곡의 시대를 끝낸다고 알고 있다고 본다. 1205-1223; cf. Leo G. Perdue, *Wisdom in Revolt* (Sheffield: Almond Press, 1991), 232-240, “I reject and am comforted over dust and ashes”; David Wolfers, *Deep Thinks out of Darkness* (Kampen: Kok Pharos, 1995), 373, 461, “Therefore do I despise, and am comforted/ For, all that are dust and ash”; 이 번역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나, 모로우의 견해대로 이 절은 복합적 의미를 담은 본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William Morrow, “Consolation, Rejection, and Repentance in Job 42:6.” *JBL* 105/2 (1986) 211-225; Robert Alden, *Job* (NAC;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3), 407-409.

- 49) 유사한 이해, Samuel Terrien, *Job*, 269-270.

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라고 본다.<sup>50)</sup> 뉴웰도 로울리와 같은 맥락에서, 아웨의 대답(욘 38-41)을 욘과 친구들의 논쟁에서(욘 3-31) 언급된 욘의 하나님에 대한 탄식과 고발에 대한 응답으로 본다. 즉 하나님이 전에는 친구처럼 대해 주셨으나(욘 29:2-4), 이제 욘을 박해하고 학대하는 적처럼(10:8-12; 13:24-27; 30:21; 10:3; 16:9, 12; 19:6-11) 변하셨다는 것이다. 한편 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관한 믿음을 지속하고 있다(욘 12:13; 13:15; 14:15-17; 17:3; 19:25; 23:6-7, 10-12). 욘은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sup>51)</sup> 뉴웰은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에서, 마치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하거나 한 것처럼 하나님을 고발하는 욘에게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시며 욘의 주장을 반박하신다고 본다. 그리고 지혜에 있어 결코 욘은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도전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증명하시고, 두 번째 응답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부정한 욘의 죄에 대해 질책하신다(욘 40:7-14)고 본다.<sup>52)</sup> 그리고 욘은 이러한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 회개로 응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욘은 자기 자신을 멸시할 수밖에 없고 하찮은 존재라고 고백할 수 없었으며(욘 40:4), 결국 자기의 고발을 철회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욘 42:6). 여기에서 욘은 자신이 고통 받기 전에 지은 죄가 아니라 즉 그의 고통이 죄의 결과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과정에서 표출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도전과 고발의 죄에 대한 회개였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과 주권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sup>53)</sup>

50) H. H. Rowley, *The Book of Job*, 18-21.

51) B. L. Newell, 311-315; 이 견해는 로울리의 해석과 같은 맥락의 해석이다; H. H. Rowley, 19-20.

52) B. L. Newell, 304-305.

53) H. H. Rowley, 20-21, "To Eilhu the suffering may bring enrichment; to the author of the book of Job it is the presence of God that is enriching, and that presence is given to men of integrity and piety in prosperity and in adversity alike."; Samuel Terrien, *Job*, 269-271; B. L. Newell, 315.

보젤은 이것을 이어지는 표현인 **עַל עֹפֶר וְאָפֶר**와 연결하여 티끌과 잿더미에 관한 그의 생각, 곧 인간존재(*la idée sur la nature de l'être humain*)에 관한 그의 생각을 바꾼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Job dit donc qu'il <<change d'idée>> <<sur la poussière et la cendre>>*).<sup>54)</sup> 보젤은 티끌과 잿더미를 피폐한 자신 또는 비천한 인생으로 보고, 이것과 연결하여 '비참한 인생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바꾼다'라는 의미로 이해한다. 설득력있는 해석이다.

욥기 42장 6절의 번역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모로우는 이 본문은 본래 저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다중적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으로 쓰여진 것으로 본다.<sup>55)</sup> 따라서 어느 한 가지 해석만이 옳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뮈엔초우도 이에 동의한다.<sup>56)</sup> 어떤 경우든 하나님 앞에서의 욥의 낮아짐과 회개의 의미는 부정될 수 없다. 이 표현의 의미는 욥

54) Walter Vogels, 243, "sur la poussière et la cendre"을 사람(욥)으로 해석함(욥 30:19); 그는 여기에서 **עַל**을 **עָפָר**과 연결하여 해석한다; 유사한 견해, Roland E. Murphy, *The Book of Job* (New York: Paulist Press, 1999), 100, "Therefore I retract and change my mind, being but dust and ashes"; Dale Patrick, *VT* 26(1976), 367-371; J. B. Curtis, *JBL* 98, 497-511; L. J. Kaplan, *VT* 28(1978), 356-358; J. Gerald Janzen, *Job* (Interpretation; Atlanta: John Knox Press, 1985), 251-259; Norman C. Habel, 576; David Clines, 1209; 전통적인 견해는 **עַל עֹפֶר וְאָפֶר**를 처격(locative)으로 이해하여 **עָפָר**과는 독립적으로 해석한다(MT의 아트나흐를 따르는 해석; *KJV, RSV, JB, NEB, NIV*; B. L. Newell, 315; Georg Fohrer, 531; H. H. Rowley, 19-20, 265-266); 그리고 최근의 Michael V. Fox, "God's Answer and Job's Response," 19; 폭스는 이 표현이 집회서 40장 3절과 에스더 4장 3절, 이사야 58장 5절에서 회개를 나타내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 표현이 '비천한 인간'자체를 나타낸다는 해석과 관련하여, 이 표현은 회개를 나타내며 동시에 욥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 상관어구(objective correlative)라고 본다. 그는 이 표현이 직접적으로 '곤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러한 상황을 암시하는 것뿐이라고 말한다("does not mean wretchedness but connotes it"). *David Clines*는 **עַל**을 함께 연결해서 읽어야 한다고 보며, **עַל**을 장소적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하나(1210), MT의 아트나흐는 이것을 장소적 의미로 이해하게 한다(*Charles Muenchow, 609-610; Michael V. Fox, 19*). **עַל עֹפֶר וְאָפֶר**는 욥기 2장 8절과의 병행적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욥의 고난의 상황을 나타내는 상징어로 해석할 수도 있다(cf. *William Morrow, "Consolation, Rejection, and Repentance in Job 42:6," esp. 222; cf. Dale Patrick, "Job XLII 6," 369-370*). 어떤 경우든 이 절이 갖는 회개의 의미 곧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의 의미는 유지될 수 있다. 뮈엔초우는 여기에서 **אָפֶר**(에페르)를 **עָפָר**(아파르)의 이형동의어(異形同意語)로 보며 '낮아진 위치'(diminished and demeaned status)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Charles Muenchow, 608-609*; 그는 **עַל עֹפֶר וְאָפֶר**를 MT를 따르며 **עָפָר**과는 독립된 표현으로 보고, 이것을 땅위에 엎어지는 행위로 이해하나 역시 이것을 자기를 낮추는 행위(self-diminution)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한다(*Charles Muenchow, 609-610*).

55) William Morrow, *윗글*, 211-225.

56) Charles Muenchow, *윗글*, 598-599.

이 고난 전에 지은 죄에 대한 회개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그가 하나님을 고발했던 것에 대한 회개로 이해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깊은 회개는 한 사람의 모든 인생관과 세계관을 바꾸게 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그가 전에 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 죄로 인지하고 자신의 죄 됨과 무가치함을 고백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죄가 회개의 대상이며 어떤 죄는 회개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

필자의 직역은 다음과 같다.

욥기 40장 3-5절, 그때에 욥이 야웨께 대답하여 이르기를, “보소서, 제가 비천하오니, 주께 무엇이랴 대답하리이까? 제 손으로 제 입을 가리나이다. 한 번 말했으나, 두 번 대답은 하지 않겠으며, 더는 대답하지 않겠나이다.”

욥기 42장 6절, “그러므로 저는 스스로를 멸시하며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회개하나이다.”

### 3. 이사야 6장 1-13절과 욥기 40장 1-5절; 42장 1-6절과의 비교검토

#### 1) 표현상의 유사성

(1) 이사야 6장의 상황은 천상어전에서 상황이다. 하나님은 천상에서 만군의 왕으로 천군 천사들을 주재하시며, 천사들(스랍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스랍들 중 한명은 이사야의 입에 숯을 가져다 대어 그를 정결하게 한다(사 6:2-6, 8).

욥기 1-2장에서의 상황도 천상어전이다. 하나님은 천상에서 천군천사들(하나님의 아들들)을 주재하신다(욥 1:6; 2:1). 그리고 그중 한 명인 사탄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한다(욥 1:6-12; 2:1-7).

(2) 이사야 6장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을 돕는 시종과 같은 역할을 한다(2, 6절). 마찬가지로 욥기 1-2장의 천상에서도 천사들은 하나님을

돕는 존재들로 움직인다. 그 하나님께서 읊을 ‘만나기’ 위하여 현현하신 것이다(욥 38-41). 말씀으로 그를 가르치시고 영감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다. 이 책의 목적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관점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다.<sup>57)</sup>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심’으로 예언자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는다. 하나님이 예언자를 가르침의 대상으로 다루는 예는 요나서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3) 이사야 6장 1절에 ‘내가 주를 보았다’(בָּרֵאשִׁית וַיֵּרֶא) 바에르에 [ראה 라아] אֵת אֱלֹהֵי אֲדָמָה 에트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나오며, 이것은 욥기 42장 5절에 나오는 ‘내가 당신을 보았다’(וַיֵּרֶא אֵת אֱלֹהֵי רַחֵם) 에니 라아트카)와 병행을 이룬다. 둘 다 동사 רָאָה(‘라아’)을 사용하고 있으며, 둘 다 목적어가 ‘하나님’이시다. 전자에서는 환상가운데 본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폭풍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본다. 그러나 이 두 경우 모두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4) 이사야 6장 3절에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성(קְדוּשָׁתוֹ 카도슈)은 ‘야웨’(יְהוָה YHWH)와 연결되어 나온다. 이사야 40장에서도 천상 이전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강조되어 나온다. 욥기에서는 이 신명(‘야웨’ YHWH)이 ‘전능자’(שַׁדַּי 샨다이)와 연결되어 나온다(욥 40:1-3). ‘카도슈’는 욥기에 세 번 나오는데(욥 5:1; 6:10; 15:15), 그중 한번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나온다(욥 6:10). 하나님의 초월성과 절대성을 나타내는 말로 욥기에서는 주로 ‘전능자’로 나타난다. 전능자라는 말은 우주적 최고의 신을 가리키는 말로 욥기 16장 19-22, 22장 12-14절에서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며 그분이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서술된다(참조, 22장 17, 23, 25절). 이 전능자

57) John E. Hartley, *The Book of Job*, 487-537; Norman C. Habel, *The Book of Job*, 549; Daniel Timmer, 291-292, 296-297; Keun-Jo Ahn, "The Significance of the Divine Speech in Job 38-41 in the Context of Literary Tradition," (Ph. D.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2004).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초월성 나타내는 말이다.<sup>58)</sup> 앤더슨(B. W. Anderson)은 이 표현(샤다이)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6장 2-3절을 제외하고, 구약 안에 35회 나오는데 그중 욥기에만 29회 나온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욥기의 저자는 이 어휘를 ‘하나님의 엄위와 전능성’ (the majesty and omnipotence of deity)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70인역도 욥기에서 ‘샤다이’를 번역할 때, κύριος (“Lord”) 또는 παντοκράτωρ(“Almighty”)로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력한다.<sup>59)</sup> 욥기 5장 9-11절에서, 엘리바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욥기 5장 17절에서 이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한다. 욥 자신의 말인 욥기 6장 1절-7장 21절에서, 특히 욥기 6장 4절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יְהוָה 샤다이)으로 나오고, 이어서 욥기 6장 10절(같은 문맥 안)에서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קָדוֹשׁ 카도슈)과 동일시된다. 그리고 욥기 9장 2-12절에서 그분이 바로 창조의 주관자로 언급된다(참조, 욥 26:5-14). 욥기 12장 22-25절(욥의 답변)에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 서술된다.

(5) 이사야의 하나님은 천상어진 높은 보좌(כִּסֵּא 키세)에 앉아계신다(사 6:1,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키세]에 앉아 계시는데”). 욥의 하나님도 천상어진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 나타난다. 물론 욥기 38-42장에서는 폭풍가운데 현현하고 계시지만 욥기 26장 9절에 나오는 욥 자신의 변론에서 하나님은 ‘보좌’(כִּסֵּא 키세)에 앉아 계신 분으로 언급된

58) B. W. Anderson, "God, Names of," *IDB, vol 2*, (Nashville: Abingdon Press, 1962), 412; Norman C. Habel, *The Book of Job*, 516.

59) B. W. Anderson, "God, Names of," 412.

다.<sup>60)</sup>

(6) 이사야 6장 2절의 한 가운데서 두 개의 숫자적 표현이 나온다: ‘하나’ אֶחָד(에하드), ‘둘’ שְׁתַּיִם(셰타임). 그리고 욥기 40장 5절에서 이 두 단어(‘하나’ אֶחָד [에하드]); ‘둘’ שְׁתַּיִם [셰타임])가 각각 이 절의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반복된다. 물론 문맥은 다르다. 이사야 6장 2절의 ‘에하드’(하나)는 전반부에서 천사 각자를 가리킨다. 그리고 ‘셰타임’(둘)은 날개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 ‘하나’와 ‘둘’을 가리키는 단어가 서로 연결되어 두 곳에서 같이 나온다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며, 이들 양자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욥기 40장 5절에 나오는 ‘하나’와 ‘둘’은 지혜문학의 전형적 특징 중의 하나인  $x, x + 1$  구조이며, 한 가지 주제로 연결되어 그 내용의 수를 강조한다.<sup>61)</sup> 반면 이사야의 경우는 한 문장에서 각각 다른 대상을 다룬다(‘천사’와 ‘그 날개’). 그러나 ‘하나’와 ‘둘’의 대상들이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며, 이 두 단어가 이렇게 두 본문에서 같이 나온다는 것은 다른 병행적 요소들과 함께 그 이미지들이 공유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

(7) 이사야에서 하나님은 ‘만군의 야웨’(YHWH צְבָאוֹת 제바오트, 사 6:3)로 불린다. 하나님은 군대의 하나님이다. 욥기에서도 하나님은 군대를 움직이시는 분으로 서술된다(욥 10:17, צְבָא 제바). 물론 이 표현이 자주 나오는 것도 정형화된 표현으로도 나오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 이미지의 반복은 이사야서와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증거이다.

(8) 이사야 6장 5절의 טָמֵא(타메)는 욥기 14장 4절에 나오는 말로서 인간의 부정함을 언급한다. 욥기에서(욥 14:4,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טָמֵא 타메)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서에서처럼 부정한 것은 결코 정결한 것과 함께할 수 없음을 언급

60) NASV, NIV는 이것을 full moon으로 번역하나, 이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보좌(throne)이다.

61) Edwin M. Good, *In Turns of Tempes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1990), 352.

한다(사 6:5,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 이로다”). 율기에서도 인간의 부정한 속성이 강조된다(율 1:5; 4:17; 8:6; 9:24-31; 14:4; 15:14-16).

(9) 이사야 6장 5절의 ‘내 눈이 보았다’(라우 에나이 ראה עיני)는 문장 구조상 율기 42장 5절의 표현인 ‘내 눈이 보았다’(에니 라아트카 ראה עיני)와 동일하다. 특별한 일치점이다.

(10) 이사야 6장 6-7절에서 천사(스랍)가 솟을 ‘손’(기 야드)으로 취하여 이사야의 ‘입’(פי פה)에 갖다 대었다는 말과 율기 40장 4절에서 율이 ‘손’(기 야드)으로 ‘입’(פי פה)를 가린다는 말은 어휘상 병행을 이룬다.

(11) 이사야 6장 9-1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듣고 보는’(שמע ורא) 샤마; 라아) 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그들의 ‘깨달음 없음’(알 타비누, בין 빈)을 이야기 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귀와 눈’(אזן 오젠; עין 아인)의 문제가 나온다.

이 깨달음(בין 빈)의 문제는 당연히 지혜문학인 율기에 중요한 주제로 나온다(인간의 깨달음, 율 6:24, 30; 13:1; 14:21; 15:9; 18:2; 23:5, 15; 26:14; 32:8, 9; 36:29; 37:14; 38:18, 20; 42:3). 특히 율기 13장 1절은 ‘듣고 보고 깨닫는다’는 표현이 그대로 연결되어 나온다(‘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그리고 율기 42장 3절에서 이 표현이 나오며 (בין 빈), 이것은 이 마지막 고백의 단락에서 ‘내가 보고 듣는다’와 ‘귀와 내 눈’이 연결되어 나오는 이 콘텍스트에서 (율 42:5) 함께 연결되어 나오는 특징을 보여 준다. 우연이라 할 수 없는 병행이다.

(12) 이사야 6장 10절에 나오는 ‘안다’(טרא 야다)라는 말도 율기 42장 1-6절에서 중심어휘로 반복된다(율 42:2, 3, 4). 그리고 이 말(טרא 야다)은 율기 40장 7절에서 연결되어 나오고(‘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עָנֵנִי 야다, 히필 let me know), 욥기 42장 11절에서 다시 나온다(עָנֵנִי 야다).

(13) 이사야 6장 10절에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이 언급된다 (שׁוּבָה 슈브). 위에 언급된 많은 학자의 견해를 따라, 욥기 42장 6절은 회개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이 양자의 내용적 병행관계를 보여 준다. 회개는 관계의 회복을 지향한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 욥기 전체의 대단원에 해당되는 욥기 42장 7-17절에서 모든 관계의 회복(하나님과 욥, 하나님과 욥의 친구들, 욥과 욥의 친구들)이 다루어진다. 이것(회복과 중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욥, ‘하나님의 중’(“나의 중”, 욥 42:7-8)으로서의 사명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욥기 5장 17-18절에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오며, 결국 욥의 회복은 모든 고통에서의 치유를 가리킨다.

이상과 같은 짧은 본문들, 욥기 40장 3-5절과 42장 1-6절과 이사야서 6장 1-13절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학적 표현과 이미지의 여러 일치점은, 비록 이 양자가 문학 장르는 다르나, 적어도 욥기 저자에게 이 이미지들이 그의 저술에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욥기의 저자는 인유법을 통하여 이사야 6장의 본문에 나오는 어휘와 이미지를 활용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sup>62)</sup> 이 관찰은 욥기의 절정부에 나타나 있는 욥의 영적체험을 예언자의 체험과의 연관성 속에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바탕을 제공한다.

## 2) 영적 심리학적 패러다임: 이사야 소명체험 및 모세, 에스겔, 바울 등의 소명체험과 욥의 체험과의 유사성

---

62) 이것을 텍스트간의 거시적 상호 연관성의 하나로 볼 수 있다. J. Bradley Chance and Milton P. Horne, *Rereading the Bible: An Introduction to the Biblical Story* (Upper Saddle River: Prentice-Hall, 2000), 2-25.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사 6:3), 만군의 야웨(사 6:3, 5)로 표현되는 절대 주권의 주님(아도나이, אֲדֹנָי)이시다. 그리고 전능의 하나님([미] 샤다이)이라는 표현도 이사야 13장 6절에서 언급된다. 물론 이사야서의 가장 보편적 표현은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말과 만군의 야웨라는 말이다. 이 세 표현이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나타내는 말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불완전성과 미천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사 6:5).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정결함을 입는다(사 6:6).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는다(6:8-13). 이와 같은 체험은 에스겔에게서도 볼 수 있는 면모이다.<sup>63)</sup> 에스겔도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난다.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겔 1:24)이셨고, 초월적인 영광의 하나님이셨다(겔 1:28). 그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겔 1:28). 그리고 나서 그는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받는다. 이것은 모세가 체험한 것과는 유사하다. 모세도 불의 모습으로(출 3:2-3) 나타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출 3:5).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는다. 모세는 두려워 얼굴을 가린다(출 3:6). 그리고 사명을 받는다. 여호수아의 경우도 그가 여리고를 치러 가기 바로 전, 하나님의 천사(하나님의 군 사령관)를 만난다(수 5:13-14). 그리고 그가 서있던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는다(수 5:15). 그리고 여리고 전투를 시작한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환한 빛 가운데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행 9:3-5). 그는 땅에 엎어졌고, 아무 말도 못하는 낮아짐의 체험을 한다(행 9:4, 6-9). 그리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는다.<sup>64)</sup>

63) 이사야와 에스겔의 소명체험 장르의 유사성, Norman C. Habel, "The Form and Significance of the Call Narratives," ZAW 77(1965), 297-323.

64) 여기에 요나의 체험(비록 소명기사는 아니지만 사명을 부여받는다는 차원에서 이와 유사함도 포함 시킬 수 있다)(Michael Corey, *Job, Jonah, and the Unconscious*, 25-30).

【이사야】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사 6:1-13) \ 영적 위기(겔손, 낮아짐의 체험, 사 6:5) / 사명(사 6:8)

【에스겔】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겔 1-3) \ 영적 위기(겔손, 낮아짐의 체험, 겔 1:28) / 사명(겔 2:1-3:21)

【모세】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출 3:1-5) \ 영적 위기(겔손, 낮아짐의 체험, 출 3:6) / 사명(출 3:7-12)

【여호수아】 거룩한 하나님(천군 사령관, 수 5:13-14)과의 만남 \ 영적 위기(겔손, 낮아짐의 체험, 수 5:15) / 사명(수 6,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 수행)

【바울】 거룩한 하나님(빛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행 9:3-5)을 만남 \ 영적 위기(겔손, 낮아짐의 체험, 행 9:4, 6-9) / 사명(행 9:17-22).

이 도표는 하나의 명백한 패러다임의 보여 준다. 이 영적 패러다임의 세 가지 핵심요소는 ‘하나님과의 만남’, ‘영적 위기(낮아짐)’, ‘사명’이다. 특히 이 사명은 이 패러다임의 귀결점이다. 이 패러다임을 욥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그 세 가지 요소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만남, 영적 위기(낮아짐), 사명이다. 욥기의 이 절정부분(욥기 38-42장)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신다. 하나님은 욥에게 응답하신다(38:1-39:30; 40:6-41:34). 여기에서 욥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욥 38-42). 하나님의 응답의 서두에서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며(욥 38:2, 38)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응답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심이 선포된다(38:4-39:30). 욥은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지혜를 본다. 그 깊고 큰 지혜로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깨달은 것이다. 세상만사에 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과 지혜가 숨어 있는 것이다. 인간은 묵묵히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의 역사를 수용하면 되는 것이

다. 이것이 바로 욥이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낮아짐을 체험한다. 이것은 그에게 영적 위기였다. 그는 자신을 다시 보는 체험을 한다. 그것은 단계적이었다. 우선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을 통하여, 그는 그 초월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체험한다(“보소서 내가 비천하오니,” 욥 40:4). 욥은 하나님의 전능성 앞에 (40:2),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40:4-5).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으로(욥 40:6-41:34),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욥 42:1-6). 그의 낮아짐은 완성된다. 이 회개는 포괄적 의미의 낮아짐의 체험이다. 자신의 죄 뉘과 비천함과 무지<sup>65)</sup>를 다시 깨닫는 회개이며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인정하는 회개인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말도 철회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예언자들의 소명체험처럼, 욥의 체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임무 곧 사명으로 종결된다. 그것이 여기에서는 중보와 용서와 회복이다. 여기에서 이 사명은 “나의 중”(욥 42:7-8, עֲבָרָא אַבְרָדָא, 4회)이란 말로 강조된다.<sup>66)</sup> 이것이 이 패러다임이 보여주는 요소로 욥기 해석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요소이다.

#### 4. 결론: 위의 두 관찰이 욥기 해석에서 갖는 함의

위의 두 관찰은 욥기를 이해하는데 있어 예언자들의 소명기사와 소명체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이 양자는 문학적 차원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체험적 차원에서 유사성을 보여준다. 이사야, 에스겔, 모세, 여호수아, 바울처럼, 욥도 전능한 하나님, 창조주요 절대적 주권자이신 만유의 하나님 아웨를 만난다. 욥

65) 욥기 40장 7-14절 // 욥기 41장 34절의 병행 안에 암시되어 있는 욥의 교만에 대해 욥은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한다(욥 42:2-6).

66) 이사야 20장 3절에서는 이사야에게 동일한 표현 עֲבָרָא(아브디)가 적용된다(렘 25:4; 26:5; 44:4; 암 3:7; 숙 1:6; 단 9:6).

기 42장 8절에서 욥은 중보의 사명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욥을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나의 종”이라고 부르신다(42:7-8; 신약에서의 바울: “그리스도의 종”[롬 1:1]; “예수의 종”[빌 1:1]; “하나님의 종”[딤후 1:1]). 이 말은 여기에서 4회에 걸쳐 반복되며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모세 이사야 등의 예언자들 곧 하나님의 대리자들에게 적용된 어휘이다. 이렇게 사명을 받는 것이 예언 소명의 핵심적 특징이다. 이 표현은 이 책의 서론부인 욥기 1-2장(욥 1:8; 2:3)에서도 나오지만 결론부인 욥기 42장 7-17절(욥 42:7-8)에서는 특히 욥이 받은 직무 즉 중보와 화해와 회복의 사명과 연결되어 나온다. 이 사명은 욥기의 대단원인 욥기 42장 7-17절(특히 7-11절)의 중심내용중의 하나이다. 욥은 그의 친구들의 죄를 사함 받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해 제물을 바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욥 42:7-11). 욥이 중보와 화해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의 친구들의 죄 사함도 없는 것이다. 그는 그들을 위한 복의 근원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이것이 종의 사명이다. 욥에게 적용된 “나의 종”(עבדִי 아브디)이라는 표현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이 표현이 욥기 결론부에서 서론부의 두 배로 강조되어 나오는 것도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서론부 2회[욥 1:8; 2:3]; 결론부 4회[욥 42:7-8]). 욥은 그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무가치함과 하나님의 전능성을 깨닫고, 성숙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용하는 과정 곧 하나님의 종이 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제 서론부(욥기 1-2장)의 ‘나의 종’ 욥(욥 1:8; 2:3), 아직 고난을 통한 성숙을 체험하지 못한 욥에서, 결론부(욥 42:7-17)의 욥 곧 영적 도약을 체험한 사명자로서의 성숙한 욥(욥 42:7-8)이 된 것이다. 욥의 체험은 단순히 한 인간의 고난의 심리적 극복을 통하여 성숙된 삶으로 전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초극하여 한 사람의 성숙한 사명자 곧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는 성장과 치유와 용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성숙한 하나님의 종, 사명자로서 양육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보여 준다. 욥은 여기에서 상처받은 그러나 이를 초극한 치유자로 거듭난다. 욥기의 결론부(욥 42:7-17)는 이것이 욥이 받게 되는 복의 시작임을 보여 준다. 이러한 관찰은 보젤과 코리와 보스의 관찰을 예언자의 소명체협이라는 관점에서 강화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문학적 차원에서 늘 논란이 되어 온 난제인 욥기의 산문부분과 운문부분과의 차이점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준다. 욥기 42장 7-17절의 내용과 38장 1절-42장 6절, 그리고 욥기 1-2장과 나머지 전체의 내용은 결코 서로 무관하고 모순된 본문들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 모든 요소들이 욥기전체를 한권의 책으로 읽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 5. 참고문헌

- 하경택, “욥의 탄식과 하나님 발언의 관계성 연구,” 「구약논단」 22 (2006), 98-114.
- 김재구, “욥기 1-3장: 욥기를 푸는 열쇠,” 「구약논단」 13/2(2007), 92-106.
- 우상혁, “이야기로서의 욥기 읽기,” 「구약논단」 17/1(2011), 83-107.
- Ahn, Keun-Jo, “The Significance of the Divine Speech in Job 38-41 in the Context of Literary Tradition,” Ph. D.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2004.
- Alden, Robert, *Job*, NAC,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3.
- Alonso Schökel, L. / Díaz, Sicre, *Job: comentario teológico y literario*, Madrid: Edición Cristiandad, 1983.
- Andersen, Francis I. *Job*,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Downers grove: IVP, 1976.

- Anderson, B. W. "God, Names of," *IDB, vol 2*, Nashville: Abingdon Press, 1962, 412.
- Boss, Jeffrey, *Human Consciousness of God in the Book of Job: a theological and psychological commentary*, New York : T&T Clark, 2010.
- Bradley Chance]. / Horne, Milton P. *Rereading the Bible: An Introduction to the Biblical Story*, Upper Saddle River: Prentice-Hall, 2000.
- Clines, David, *Job 1-20*, Waco: Word Books, 1989;  
 \_\_\_\_\_, *Job 21-37*,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6;  
 \_\_\_\_\_, *Job 38-42*, Dallas: Word Books, 2011;  
 \_\_\_\_\_, "Does the Book of Job Suggest that Suffering is Not a Problem," *Weisheit in Israel: Beiträge des Symposiums "Das Alte Testament und die Kultur der Moderne" anlässlich des 100. Geburtstags Gerhard von Rads (1901 – 1971)*, Heidelberg, 18.-21. Oktober 2001 (ed. David J. A. Clines, Hermann Lichtenberger and Hans-Peter Müller; *Altes Testament und Moderne*, 12; Münster: Lit Verlag, 2003), 93-110.
- Corey, Michael, *Job, Jonah, and the Unconscious*, Marylan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4.
- Fohrer, Georg, *Das Buch Hiob*, 2 Auflage, 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Gütersloh: Gütersloh Verl. 1963, 1988.
- Fox, Michael V. "God's Answer and Job's response," *Biblica* 94(2013), 1-23.
- Glazov, Gregory Yuri, "The Significance of the 'Hand on the Mouth' Gesture in Job xl 4," *VT* 52 (2002), 30-41.
- Good, Edwin M. In *Turns of Tempest: A Reading of Job with a Transl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 Gray, John, *The Book of Job*,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10.

- Habel, Norman C. "The Form and Significance of the Call Narratives," *ZAW* 77(1965), 297-323.
- \_\_\_\_\_, *Job*,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85.
- Hahn, Roger, et al. *Discovering the New Testament*, Kansas: Beacon Hill Press, 2005.
- Hartley, John E. *The Book of Job*, Grand Rapids: Eardmans, 1988.
- Holladay, William L. *A Concis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Leiden: Brill, 1988.
- Janzen, J. Gerald, *Job*, Interpretation, Atlanta: John Knox Press, 1985.
- Kaplan, L. J. "Maimonides, Dale Patrick, and Job XLII 6," *VT* 28(1978), 356-357.
- Kuyper, L. J. "The Repentance of Job," *VT* 9(1959), 91-94.
- Lajoie, D. H. / Shapiro, S. I. "Definitions of Transpersonal Psychology: The First Twenty-three Years," *Journal of Transpersonal Psychology*, 24/1(1992), 79-98.
- Maslow, Abraham, *Religions, Values, and Peak Experiences*, Kappa Delta Pi, 1964. 1970 (preface) The Viking Press. Published by Penguin Books Limited.
- Morrow, William, "Consolation, Rejection, and Repentance in *Job* 42:6," *JBL* 105/2(1986), 211-225.
- Muenchow, Charles, "Dust and Dirt in *Job* 42:6," *JBL* 108/4 (1989), 597-611.
- Murphy, Roland E. *The Book of Job*, New York: Paulist Press, 1999.
- Nam Duck Woo, "Job 42:7-9 and The Nature of god in the Book of Job," Ph. D. Dissertation,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2000.
- Newell, B. L. "Job: Repentant or Rebellious?" *WTJ* 46(1984), 298-

- Newsom, Carol A. "Job,"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4*,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 \_\_\_\_\_, *The Book of Job: A Contest of Moral Imagin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Otto, Rudolf, *The Idea of the Hol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 Patrick, Dale, "The Translation of Job XLII 6," *VT* 26 (1976), 369-371.
- Perdue, Leo G. *Wisdom in Revolt*, Sheffield: Almond Press, 1991.
- 마빈 H. 포프, 「욥기」,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 원제는 Marvin H. Pope, *Job*, Doubleday & Company, 1965, 1973.
- Robertson, D. A. *The Old Testament and the Literary Critic*,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7.
- Rowley, H. H. *The Book of Job*, NCBC; Grand Rapids: Eerdmans, 1981.
- Rowold, H. "Yahweh's Challenge to Rival: The Form and Function of the Yahweh-Speech in Job 38-39," *CBQ* 47 (1985), 199-222.
- Terrien, Samuel, "The Book of Job," *The Interpreter's Bible, vol. 3*, Nashville: Abingdon Press, 1954.
- \_\_\_\_\_, *Job: Poet of Existence*, New York: The Bobbs-Merril Company, 1957.
- Timmer, Daniel, "God's Speeches, Job's Response, and the Problem of Coherence in the Book of Job: Sapiential Pedagogy Revisited," *CBQ* 71 (2009), 286-305.
- Tremper Longman III, *Job*,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2.
- Tsevat, M. "The Meaning of the Book of Job," *HUCA* 37 (1966), 73-

106.

Vogels, Walter, "The Spiritual Growth of Job: A Psychological Approach to the Book of Job," *Biblical Theology Bulletin* 11 (1981) 77-80;

\_\_\_\_\_, *Job, L'homme qui a bien parlé de Dieu*, Paris: Cerf, 1995.

Walsh, R. & Vaughan, F. "On Transpersonal Definitions," *Journal of Transpersonal Psychology* 25/2 (1993), 199-207.

Westermann, Claus, *The Structure of the Book of Job: a form-critical analysi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1.

Wolfers, David, *Deep Thinks out of Darkness*, Kampen: Kok Pharos, 1995.

검색어

읍

영적 심리학적

이사야 6장

소명기사

하나님의 종

문학적 통일성

# Central Contents of Job 38-42 Re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Call Narrative(Isaiah 6)

Cheol-Woo Park,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Korea Nazarene University

Job 38-42, the climactic part of the entire Book of Job, has produced a variety of interpretation. In this paper, I tried to contribute to make clearer the central contents of Job 38-42 by interpreting from the literary and psychospiritual point of view.

By focusing on Job 40:3-5 and 42:1-6, I tried to show that these texts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Isaiah 6 in their indirect allusions from the latter, and that there are certain psychospiritual paradigm between Joban story and the call narratives, Isaiah's call narrative in particular. On these bases, I have tried to reexamine the contents of Job 40:3-5 and 42:1-6, the function and role of Job 42:7-17 which follows the former texts, and to clarify the writing purpose of Joban author. On the basis of it, I have tried to bring it into relief that the purpose of the book is to show that God of Job is the God who brings up His people, forgives and heals them, and also the God who guides and leads His people, which is His servant, to become mature for His mission. I also tried to show that the Book of Job is not such a book as can be read inadequately in a literarily fragmented form, but only as one single book which has a literary unity in it.

## **Keywords**

Job

Psychospiritual

Isaiah 6

Call narrative

Servant of God

Literary unity.

■ 투고일: 2014년 4월 01일

■ 심사일: 2014년 4월 28일

■ 게재 확정일: 2014년 5월 06일

[www.kci.go.kr](http://www.kci.go.kr)